

# “재활용 신사업 주목… 순환경제 포트폴리오 혁신 가속화”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美 'SK이노 글로벌 포럼' 기조연설  
원자력 등 차세대 성장 분야 관심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이 '에너지 믹스(Mix)' 변화에 따른 미래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가속화한다.

김 부회장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San Jose)에서 개최된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포럼'에 참석했다. 김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차별적 기술 기반의 무탄소·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 중심 친환경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전기가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전동화, 폐기물·소재 재활용 등에 초점을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전세계 에너지는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 무탄소·저탄소 에너지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줄여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순환경제 또한 변화의 핵심”이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포럼' 기조연설에서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의지를 소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포럼은 SK그룹이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2년 시작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무탄소·저탄소 에너지, 자원순환, 차세대 배터리 등 자사 사업 분야와 관련한 포럼을 11~12일 열고 현지 산학

전문가들과 토론,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포럼에는 김 부회장을 비롯해 지동섭 SK온 사장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배터리), SKIET(배터리 분리막) 그리고 SK어스온(자원개발·CCS) 등 미래 유망 사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해 사업 전문 자회사로 경쟁력을 확보해왔으며, 에너지 믹스 변화에 맞춰 추가적인 성장 방향성을 검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전동화, 폐기물·소재 재활용 분야와 관련해 자체 보유 기술에 더해 각 분야 글로벌 선도 및 유망 기업 지분투자 또는 기술·사업 협력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의 R&D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로 추진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SK(주)와 함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인 미국 테라파워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지난 2008년 설립한 원전 업계의 혁신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사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김 부회장은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전동화 영역에서는 원자력(SMR), 전기차 배터리 및 소재 등 다양한 차세대 성장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며 “폐배터리 재활용, 폐자원 활용 등 순환

경제 영역에서의 신규 성장동력 발굴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SK그룹 경영의 최고 협의기구인 수펙스추진협의회에서 환경 사업위원장 또한 맡고 있다. 환경 사업 관련,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그룹 내 관계사간 시너지와 공동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탄소감축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성장의 속도는 그만큼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은 온실가스 ‘넷 제로(Net Zero)’를 2050년 이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친환경 비즈니스의 핵심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회사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통찰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며 “SK이노베이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의 강력한 실행을 위해 글로벌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넉넉한 공간에 친환경적… 무결점 SUV

### 자동차 시승기

#### 볼보 XC60

모든 차량 친환경 파워트레인 장착  
자연의 나라 ‘스웨덴’ 감성 구현

볼보는 캠핑에 잘 어울리는 차다. 넉넉한 공간에 높은 안전성. 그리고 친환경 경성까지 갖췄다. 자연과 미니멀리즘의 나라 스웨덴 감성을 그대로 구현했다.

볼보 XC60 B6와 함께 캠핑을 다녀왔다. 힐레베르그 등 스웨덴의 유명 장비들과 함께했다. 중형 세단으로도 충분히 넉넉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XC60의 수납 공간은 말 그대로 알차다. XC90과 같이 넓지는 않지만, 캠핑용 박스가 꼭 들어맞는 크기라서 짐을 툭툭 던져 넣어도 쏙쏙 들어간다. 부피가 작기로 유명한 스웨덴 장비들을 실으니 수납 편의성은 훨씬 줄었다.



신형 볼보 XC60 주행모습.

시동을 켜니 주행 가능 거리가 먼저 시선을 뺐었다. 800km를 훌쩍 넘는 숫자. 평범한 가솔린 중형 SUV에서는 보기 어려운 숫자다. 71L 연료 탱크에 공인 연비 9.1km/L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덕분이다. 볼보는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차량에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장착했다. 실제 연비는 공인 연비를 상회했다.

주행 성능도 안락할 수 밖에 없다. 최대 토크 42.8kg·m에 최고출력 300마력으로 무거운 짐과 사람을 잔뜩 싣고서도

편안하게 달렸다. 기본 장착된 안전 기능이 긴 여행길을 더 편하게 만들어준다. 시트 포지션이 다른 SUV에 비해 낮아 승용차와 같은 느낌도 받았다. 파일럿어 시스템을 버튼 한개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어서 주행 피로감도 최소화했다.

국내 도로에서 가장 쓸모가 큰 기능은 단연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다. 내비게이션을 티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호출 명령어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공조 기능까지 쓸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LG에너지솔루션, ‘인공지능 자문단’ 운영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

LG에너지솔루션이 디지털 혁신과 제조기능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 자문단을 운영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전병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와 신진우 KAIST AI대학원 석좌교수, 박종우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종민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등 5명을 AI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AI 자문단은 ▲빅데이터·AI ▲AI 시스템 ▲AI알고리즘 ▲공정용 로봇·비전 ▲공정제어·최적화 등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번 위촉된 5명의 자문위원들은 각각의 분과를 맡아 LG에너지솔루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기술 협력을 자문한다. AI를 활용한 혁신과제 발굴, 특히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AI 과제 수행을 비롯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자문단 초대 단장을 맡은 윤성로 교수는 “2차전지 사업은 국가적으로 반도체의 뒤를 이을 만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중요한 분야”라며 “기술적 도약을 위해 AI 및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전지사업의 글로벌 리더인 LG에너지솔루션에서 AI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DX/AI/빅데이터를 리드하는 CDO 변경석 전무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AI 자문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시스템 분과는 전병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허정운 기자

## 삼성전자 모바일 기술개발·인재육성 속도

‘제1회 MX 비전 데이’ 개최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며 모바일 기술 미래를 준비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수원디지털시티에서 ‘제1회 MX 비전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첨단 모바일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

공대, 한양대 등 국내 주요 대학 교수진과 22개 연구소의 100여명 연구원들을 초청해 모바일 기술 관련 최신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노태문 사업부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성(Openness)’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와 우수 인재 양성이 MX사업부의 핵심 가치”라며, “지속적인 산학협력력을 통해 ‘열린 혁신(Open Innovatio

n)’을 실현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미래가치를 높이는 갤럭시 생태계를 지속 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MX사업부는 최신 모바일 기술과 시장 동향 그리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모바일 경험을 혁신하는 MX사업부의 사업 전략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부터 22개 대학 연구소와 함께 ▲카메라, 디스플레이, 오디오 등 주요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그래픽 등 소프트웨어 기술 ▲보안, 클라우드 등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핵심 기술을 연구해왔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제주서 초록빛 세상 띄워보세요”

제주신화월드서 ‘그린 프로젝트’

LG티운이 제주 여행객들을 만난다. LG전자는 10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1달여간 제주신화월드에서 ‘LG 티운 그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여름, 제주에서 초록빛 세상을 띄워보세요’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메리어트관 메인 라운지와 수영장 등에 LG 티운과 미니를 통해 허브와 채소 등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소개하고, 라운지에서 ‘티운 포레스트 모히

또’를 제공하는 등이다. ‘제주에 티운’ 패키지로 숙박 예약을 한 고객에게 객실 할인, 모실수영장 무료 입장, 신화테마파크 이용 쿠폰, 조식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도 마련됐다. 리조트에 비치된 LG 티운과 티운 미니를 찍어서 해시태그 #제주에티운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고객 중에 추첨을 통해 티운 미니 100대를 증정한다. 10일 저녁에는 가수 자이언티(Zion.T)가 ‘티운에서 꺼내먹어요’ 공연을 펼칠지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